

강대춘 본청 과장

강원조달청장 발령



조달청은 16일 제32대 강원조달청장에 강대춘(56) 본청 시설국토목환경과장을 발령

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강대춘 신임 강원조달청장은 1991년(7급 공채) 공직에 입문해 우수제품과, 외자구매과, 감사담당관실, 강원조달청 물자구매과장 등을 지냈다.

한윤자 현 청장은 본청 전자조달국 물품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은복 rio@kado.net



다음주 무실~만종 도로 개찰... 공공시장 최저가 입찰 마침표

‘최저가’ 역사속으로... 종심제 발주 속도

지난 15년간 대형공사(추정가액 300억 원 이상) 입찰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최저가 낙찰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다음주 마지막 최저가 공사 개찰을 앞둔 가운데, 이번주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발주 및 집행이 본격화돼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K-water는 지난 연말 최저가로 발주한 부산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 시설(1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저가심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K-water가 집행하는 마지막 최저가 입찰로, 1~2단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에 앞서 지난주 마지막 최저가 방식으로 경부선 지천~대구 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를 집행

에코델타시티 하수시설 지천~대구 금호강교 개량 잇따라 저가심사 진행중 종심제 기준도 속속 확정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공공건설시장에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최저가 대상 공사는 단 2건만 남게 됐다.

모두 중앙조달방식으로, 조달청은 우선 이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추포~암태 도로건설공사 개찰을 16일 집행한다.

조달청은 이어 오는 22일 최저가 입찰시장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물량인 강원 원주시 수요의 서부순환도로(무실~만

종간) 개설공사에 대한 개찰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렇듯 해묵은 최저가 입찰이 막바지로 치닫는 사이, 이를 대체할 종심제 대상 공사의 발주 및 집행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조달청은 가장 먼저 세부심사 기준을 확정, 2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 외에 종합심사평가제(이하 종평제) 시행이 오는 5월부터로 유예됨에 따라, 지자체(지방공기업) 수요의 대형공사도 당분간은 종심제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 중 1호 사업인 국토부 부산지방국토청 수요의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는 오는 18일 개찰이 집행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최근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발주 체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단의 경우 앞서 지난 14일 종심제 시행을 위한 모의입찰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발주했다.

K-water는 늦어도 이번주 중 심사기준을 확정해 다음주부터는 시행에 나설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여타 발주자도 이달 말을 전후해 종심제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 낙찰제가 이달이면 종료되는데, 시원스럽진 않지만 “새로 시작되는 종심제(종평제)는 최저가가 남긴 과오를 거둬하지 않는, 합리적인 입찰제도로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설시장의 최저가 입찰은 모두 종료되지만, 국가계약법령을 따르지 않는 대행개발이나 공공임대리츠사업 등에는 앞으로도 당분간 최저가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bskbgong@